

박물관대학서 듣는 '서양미술사'



에곤 실레 '파리열매가 있는 자화상'



국립광주박물관이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박물관대학을 연다. 지난 강연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러시아 미술', '조현실주의', '입체주의와 추상 미술', '개념미술', '비디오아트'...

서양미술은 고대 동굴벽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깊다. 물론 언제부터 정확히 서양 미술이 시작됐는지 가능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문명과 교섭을 통해 서양미술이 다채롭게 전개돼왔다.

서양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교육관 대강당)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을 진행한다. '지적공감, 서양미술사 2'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이번 박물관대학은 (사)국립광주박물관회(회장 이병희)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1교시는 강의, 2교시는 관련 다큐를 시청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20명 모집. (신청은 광주박물관 누리집서 가능)

이애령 관장은 "지금까지 광주박물관대학은 한국,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강의를 통해 전통문화 이해와 인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에는 서양미술을 매개로 인문학, 지적 탐험을 시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강의 문은 오는 24일 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연다. '현대미술과 서양의 미

국립광주박물관 24일~11월27일 '지적공감, 서양미술사 2' 주제 현대미술·서양미술 전통 등 강연·다큐 시청...220명 선착순

술 전통'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5월 8일에는 김한결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19세기 유럽의 미술품 수집과 미술관'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세 번째 강의는 5월 22일 윤혜원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가 '서양의 20세기 사진'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며 네 번째 강의는 이진숙 미술평론가가 '19세기 러시아 미술'을 모티브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잠재의식을 주요 모티브로 과감한 표현을 추구했던 초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도 있다. 초현실주의는 1차 대전 이후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촉진됐던 문예사조의 일종이다. 정은영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가 '초현실주의' (6월 19일)를 주제로 전위적 문예사조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7월 3일에는 김진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

수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후 7월 17일은 정무정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9월 25일 8차시에는 김승환 조선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의 '추상미술과 추상표현주의', 10월 16일은 신정훈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의 '개념미술'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30일은 양승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 산책'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박혜연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는 '비디오아트' (11월 13일)를 매개로 서양 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12차시인 11월 27일은 정연심 홍익대 예술대학 교수가 '21세기의 새로운 미술'을 주제로 이번 박물관대학 마지막 강연을 맺는다.

강연 이외의 특별전을 관람하는 시간도 있다. 12월 4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 특별전 '비엔나 모더니즘의 탄생'을 관람한다.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이번 박물관대학은 서양 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강좌로 구성했다"며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이 함께 진행되는 박물관대학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 '굿'...국악의 신명 춤춘다



'도살풀이 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 7일 진악당

우리 문화의 진수를 담아내는 '판'과 '굿'을 만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국악의 향연-판, 그리고 굿'을 오는 6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판과 굿을 모티브로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악합주 '남도삼현'으로 막을 연다. '씻김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곡으로, 진양조와 굿거리장단에 맞춰 망자와 생자의 액살을 막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는 나승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다. 여러 지명과 풍경을 읊을 때 리듬의 묘미를 살린 엮모리장단으로 표현한 점과 극적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홍보희는 무용수의 개성이 돋보이는 '입춤'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즉흥성이 강한 민속무용인 '입춤'은 무용수가 자유롭게 장단을 구성하고 무대나 장소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가야금중주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199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 '도살풀이춤', 남도 신민요 '꽃 피는 새동산'과 '뽕타령'을 들을 수 있다.

대연을 만드는 진법놀이 등으로 이목을 끄는 사물놀이 '판굿'도 레퍼토리에 있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이번 공연은 '개인 놀이'부터 '단체 협주' 등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다"며 "특히 영화 '파도' 인기와 맞물린 '살풀이춤', '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남도삼현' 등이 관객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국악원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BTS 공백 지운 '제이홉'

외신, 신보·다큐 조명... "카리스마로 전세계 팬 매료"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사진)의 신보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 (HOPE ON THE STREET VOL.1)과 동명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외신들이 조명했다.

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미국 연예 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다루며 "제이홉이 차원이 다른 댄스와 강력한 음악적 역량을 보이는 가운데 카리스마를 발산해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 매체 콘시퀀스 오브 사운드스는 지난달 29일 제이홉의 신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 제이홉이 2018년 발표한 첫 솔로 믹스테이프(비정규음반) '호프 월드'의 밝고 낙천적인 사운드에 가깝게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음악 매체 그래미닷컴은 같은 날 제이홉의 여정을 되짚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그래미닷컴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기 훨씬 전 제이홉은 놀이터에서 춤추며 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처음 발견했다"며 "신보에 '뉴런'이라는 제목



의 곡을 실으면서 과거 몸담은 크루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제이홉은 올해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시의 저력' 창비시선 500호 발간

팝업스토어·북토크 등 행사 다채

신경림의 '농무'는 한국 현대시 고전 가운데 하나다.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당대 농촌과 민중들의 삶을 그렸다. 지난 1975년 3월 창비시선으로 초판이 발행된 지, 올해로 4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창비시선이 500호를 발간해 문학출판계 화제가 되고 있다. 창비는 500호 기념시선집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 특별시선집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을 동시에 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은 안희연, 황인찬 시인이 창비시선 401번인 김용택 시인

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부터 499번 한재범 시인의 '웃긴 게 뭘지 아세요'까지 각각의 작품집에서 시 한편을 가려 엮었다.

함께 선보인 특별시선집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은 시인들이 애송하는 작품을 추려서 묶었다. 추천은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의 작가 들인 창비시선 400번대 시인들이 했다.

시선집에는 창비시선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제목은 창비시선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경림 시인의 작품집 '농무'의 수록작 '그 여름'의 한 대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원 문학평론가(창작과비평 편집위원)는 '어는 글'에서 "창비시선이 500번째 시집을 낸 것은 한



국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서 당당한 삶을 갈망해온 존재들의 힘을 증명한다"고 했다.

한편 창비는 창비시선 500호 발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젊은 시인들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 '이건 다만 사랑의 습관'을 엮은 시인의 북토크도 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